

2014 - 25 (3교구 1팀)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4 년 6 월 2 일(월) ~ 2014년 2 월 10 일(화)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 캄보디아/ 캄퐁치낭
3. 교구/교회학교 : 3교구 / 부
4. 팀 장 : 김 종 훈 (서명) 김성욱장 위원장 서기 : (서명)
5. 보고일자 : 2014년 6월 15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캄보디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접기도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끝마치는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시장과 공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가 전도한 곳의 20%는 한국교회에서 세워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어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은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40도를 오르 내리는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내일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먹고 잘 자고 다음날 또 다시 열심히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추천할 내용	없어졌던 책받침 전도지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3. 개선할 내용	팀원들의 고령자가 많거나 더운 날씨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사역 날짜를 줄여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오랜 기간 선교에 임하다 보니 세부적인 규정들이 잊혀진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자주가는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영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 종교상황 • 치안상황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띠어웁기가 정확하면 더 잘 알아 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띠어웁 기가 중요했습니다.			
★ 기 사 정 보		성명	플러스	차종	벤츠 10인승
1일 비용	50\$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0)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총 비 용	450\$	이메일			
기사 평가	대체로 양호(영어 잘함) 공항->호텔20\$,프놈펜<-->캄퐁치낭90\$,5일X50\$=250\$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프놈펜 리갈 호텔	2인1실	15\$	온 수	O	☎	023990809/092789774
	3인1실		냉 난 방	O	이메일	jamesoh_kr@naver.com
	기타		아침식사	O		
숙 소 평 가	중상정도. 한국인이 하는 호텔이라 가격조정과 식사가 좋았음. 방2개가 에어컨이 안 되어서 더웠음. 아침식사를 사먹을 수 있어서 좋음.					
캄퐁치낭 삼봉센호텔	2인1실	15\$	온 수	O	☎	026989011/092382979
	3인1실		냉 난 방	O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X		
숙 소 평 가	중상정도. 욕실하수구에서 배수가 잘 안되는 방이 있음.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는 방이 있음. 에어컨이 약한 방이 있어서 선풍기를 줌.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soramarith high school	10km	2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유	학교전도, 일대일 전도
svay chom	20km	3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학교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teapous	20km	3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축호전도, 노방전도
pongro svay chom school	15km	25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학교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prey mui	25km	35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유	축호전도, 노방전도
toap thaeng	25km	35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학생들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meanchey	35km	5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유	축호전도, 노방전도
phsar	40km	6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학교교실사역
trapeangkhor	25km	35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무	축호전도, 노방전도
시장과 공원	5km	10분	80% 영접기도까지 함	유	일대일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제3대지 중학교	10km	20분	거의 다 영접기도까지 함	유	학교교실사역
프놈펜 국립대	돌아올때	2 시 간 30 분	30% 정도는 바쁘다고 함	유	일대일전도, 노방전도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Ek phanna rong		중
Sophorn kety		상
Sreyam		한국말 중
Sokhouch		
BMCm6r007		
soklengphan		
Kosaltith		
yakayen		
chhourrr		
yandinay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

< 캄보디아 캄퐁치낭 선교 소감문 >

팀장: 김종훈 안수집사 (3교구-1팀)

이번 선교는 예전과 달리 팀 구성이 의외로 쉽게 구성되어 팀장으로서 매우 안도하며 훈련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전도문제로 출발 날짜를 3일 앞당기게 되었는데 이것도 주님의 뜻이 담긴 의미있는 일이었다. 6월4일이 선거일이어서 한국에 있어도 일을 못하는데 회사에 나가는 남자팀원들은 도움이 되었다. 선교지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운전 기사에 의하면 자기도 이 시기에 이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이라고 말해 도착할 때부터 겁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선교팀은 비를 몰고 왔다. 그렇게 가물고 무더웠던 날씨가 소나기도 오고 큰 국지성 호우도 왔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셨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교가 처음인 집사님과 캄보디아에는 처음오신 권사님, 그리고 나와 같이 선교를 다녀 온 적 없는 팀원들이 더 열심이었다. 하모니카 연주로 찬양을 도와준 권사님도 선교지에서 칭찬을 들은 것은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선교라고 하셨다. 너무나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뿌린 씨앗이 크게 열매 맺기를 바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총무: 이명호 집사 (3교구-1팀)

김종훈 팀장님이 선교가자고 전화가 왔을 때 거절 할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수집사 피택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성경과 캄보디아 언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심사에서 탈락될까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심사를 마치게 되었고, 선교지로 향할 때 부족한 저를 단기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속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첫날 전도지를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하여 “쫄무리업 썬어” 라고 인사는 했으나 다음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아 망설이고 당황했습니다. 권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한 두 번 하다 보니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너무도 순수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3인 1조가 되어 축호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받아들이며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학교전도에서 김인숙 권사님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며 합창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에 반복해서 찬송가를 부르니 우리들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루는 농촌에서 축호 전도를 하는데 한 여성이 링걸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전도를 목표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파할 시간이 되어도 학교가 보이지 않아 마음을 졸이며 걱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고 가는데 마침 학교가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서가: 김성옥 권사(3교구-1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캄보디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선교사역 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캄보디아 영혼들에게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나 맘껏 전할 수 있는 곳 이었습니다. 학교교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길가에 모여서, 시장 한복판에서, 가족들이 놀고 있는 공원에서, 가정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한 어린이들과는 “쁘레아 예수 쓰런 라인 크눔나~”를 찬양하고 율동하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한 아가씨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영접기도를 하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찾아간 집에 그 아가씨가 있었고 가족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도록 옆에서 도우는 모습에서 그녀의 간절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처럼 전도자의 입장에 서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벌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러 자전거를 타고 우르르 몰려 왔습니다. 팀장님과 총무님이 모두 세우자 내려서 모여들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선 권사님은 구절을 다시 반복하여 들려주도록 함께했고 한권사님은 소형 마이크시설을 입에 대주어 소리가 크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우셔서 팀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심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영접기도차례가 되고 두손을 모으자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했고 또박또박 큰소리로 합창하듯이 영접기도를 하고 아멘하는 모습들은 정말 천사같았습니다.

한 마을 불상의 깎고 있던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과연 영접할까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밥이라는 소년이 정말 뚫어지게 복음을 듣는 모습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알았고 영접기도와 아멘을 한 후에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데 깎고 있던 불상을 가르켜 엑스라고 표시해 주고 전도지 속 예수님을 가리켜 동그라미라고 표시해주고 “예수님 외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자 고개를 고덕었다. 참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번은 공원에서 전도한 한 남자 아이의 누나는 10일후에 한국 서울에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얼른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충현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성실과 인내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은 캄보디아 영혼들이 모두 천국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회계: 유춘남 권사(3교구-1팀)

2013년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와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구에서 캄보디아 팀을 찾아 선교신청을 하고 오니 13년도에 갔다는 바로 그곳이었다.

6월달은 너무도 무더운 날씨라는 소식에 겁은 났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날씨쯤이야 했다.

선교현장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무더웠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등줄기에서는 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그 눈망울을 보았을 때는 눈으로 땀이 들어가고 옷은 다 젖었지만 진정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렸다.

온 몸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젊은 청년, 학교 앞에서 만난 두 손이 없는 어린학생, 온몸이 화상으로 차마 보기도 힘들 정도의 중년남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환한 얼굴로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는 모든 사람들, 진정 그들을 위해 이곳까지 보내신 주님.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한다.

의료:김인숙 권사(3교구-1팀)

부족한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미려한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복음을 전하며 캄퐁치낭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맑은 눈망울들과 환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 누리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팀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혜옥 권사(3교구-1팀)

오랫동안 선교를 가지 못해서 2년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2014년 주님의 은혜로 3교구 1팀 김종훈 집사님을 팀장으로 캄보디아로 9명의 단기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첫날 프놈펜에서 무더위로 잠을 자지 못해 몹시 불편한 몸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어 기도했다.

캄퐁치낭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출발할 때 뜨겁던 햇볕을 주님께서 구름을 보내주시어 가려 주셨으며 선교하는 동안 때로는 비로 대지를 식혀주시고 오후 사역때는 구름으로 가리워 주셔서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사역을 도우심을 찬양하였다.

모든 팀원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찬양과 말씀과 율동으로 협력하며 학교사역, 축호전도, 노방전도를 병행하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에게 인도해 주셨다. 천진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이로부터 질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노인에게까지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영숙 권사(3교구-1팀)

3년전에 왔었던 캄보디아 캄퐁치낭으로 다시 선교를 왔다.

한번 왔다 간 곳이라 정감이 있었다.

캄퐁치낭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다. 우리교회에서도 많이들 왔다 간 곳이라서 팀모임을 하면서 꼭 만났자들을 만나기를 기도했다. 이제는 한해 두해 나이를 먹어가기에 이 선교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절한 기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였다.

4차 심사를 받고 다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작은 일들을 통해 선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 주셔야 함을 깨달았다.

이곳에 와보니 삼년 전보다 교회들이 더 세워져 있었다.

지방교회에서 보내신 선교사도 들어와 계셨다. 참 반갑고 고마웠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 교회다니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어왔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전혀 못들어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시는 주님을 깨달았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씨는 누가 뿌리고 물은 누가주 나 항상 궁금했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에 감사했다.

듣든지 못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도 또 한번 깨달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과가 궁금했었는데 눈으로 보여주셔서 많은 교회가 생겨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정숙 권사(3교구-1팀)

하나님의 은혜로 8박 9일간의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였다. 첫날 사역에 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다. 새까만 눈동자에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이 너무나 순박해보였다.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하였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말씀 듣고 영접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주시어 우리를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생각되어 감사하였다.

그리고 우리 3교구 1팀 팀장님과 팀원들께 감사한다. 부족한 사람을 팀원으로 받아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도록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여야겠다.

조영란 권사(3교구-1팀)

그동안 몽골사역에만 전력하던 나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새로이 언어를 외우느라 힘들었고 또한 새로이 한교구가 된 낯선 팀장을 모시고 하는 팀 훈련도 좀 긴장되어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하지만 팀원들이 워낙 영적으로 무장된 권사님들로 구성되어 한편으로 마음이 편안하였다. 나의 예감은 맞았다. 오래전부터 지냈던 팀원인양 우리들은 순전하게 팀훈련에 임하였고 드디어 캄보디아 캄퐁치낭에 도착하게 되었다. 40°를 육박하는 살인적 더위 속에서 처음 시작한 사역은 팀장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학교사역이었다. 광활한 땅에 띄엄띄엄 있는 몽골 게르사역은 한참가야 한 가정 만나 사역하고 하루에 많이 만나야 40~50 만나던 몽골 사역과는 달리 캄보디아는 한번에 몇십명 만나 찬양과 복음사역을 하게 되니 정말 흥분되고 기뻐다. 한권사님은 하모니카를 불며 우리의 찬양사역을 더욱 힘있게 해주셨다. 캄보디아 사역에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복음 사역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이 땅에 뿌린 생명의 씨앗이 많은 생명의 결실로 맺어지길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뜨거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5 교구 1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4 년 6 월 2 일(월) ~ 2014 년 6 월 10 일(화) (8 박 9 일)
 2. 국가/사역지역 : 캄보디아 / 캄퐁툼
 3. 교구/교회학교 : 5 교구 1 팀
 4. 팀 장 : 송문식 (서명)
 5. 보고일자 : 2014 년 7 월 6 일
 6. 보고내용 :
- | | | | | | |
|----|---|---|---|---|----|
| 서기 | 결 | 말 | 임 | 당 | 서명 |
| | | | | | |

1. 사역에 대한 총평	프놈펜에서 캄퐁툼 까지 160km 거리인데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4시간 정도 걸려 도착 할수 있었고 큰 도시는 아니지만 숙소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하였는데 방값은 다른 도시보다 조금 비싼편 이었다 식당은 숙소 바로 옆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고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맛도 괜찮았다 선교 사역 내내 비도 안오고 무척 더운 날씨였다 우리는 동 서 남 북 으로 숙소에서 20~30분 거리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복음을 처음 대한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을 잘 받아 주었다 특히 가는곳마다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양해를 구해 교실 안에서 학생 들에게 팀장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학교 선생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니 학생들의 이해가 빠르고 좋았던것 같다 사역 내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형한 귀한 은혜의 사역이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2. 추천할 내용	학교 사역시 그곳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선생님께서 복음을 반복해 전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이해도 쉽고 집중이 잘되는것 같아 좋았던것 같다.
3. 개선할 내용	우리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다.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선교는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7. 현지 및 기사 정보

• 정치/경제		도시 중심으로 개발과 변화가 많아 지는것 같다		• 종교상황 • 치안상황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 같다/ 잘못된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이해도 괜찮고 일반 언어 조금 더 알고 가면 좋을 듯					
* 기사 정보		성명	진 대 동		차종	봉고 (10인승)	
1일 비용	\$50	☎			추천 여부	적극 추천 (0)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0) 영어 가능 (0)	
총 비 용	\$470	이메일					
기사 평가		우리말도약간은가능하며영어도약간하고선교흐름도알고있으나오래하다보니우리가그를잘활용해야함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SOVANN BOREI THMEL	2인1실	\$15	온 수		☎	(855) 23-880-348
	3인1실		냉 난 방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별도		
숙 소 평 가	프놈펜공항 근거리 하루 숙박 양호함					
ROYAL GARDEN HOTEL	2인1실	\$18	온 수	0	☎	(855) 062-961-228
	3인1실	\$27	냉 난 방	0	이메일	
	기타		아침식사	별도		
숙 소 평 가	주위가 조용하고 깨끗하며 시설도 양호 예매 드리기 좋음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 (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VOA YEAV	25km	30분	첫날 사역지 정탐	무	
VOA YEAV. Enteak Komar	25Km	30분	숙소에서 멀지않은 거리인데도 복음을 처음 듣는사람이 많았고 잘 받아 주었다	무	노방전도 축호전도
Romeang Ngoab. Tram Khla	17Km	20분	초등학교에서 이사장님의 허락하에 복음 전함(찬양) (지속적인 선교가 필요함)	무	학교사역 축호전도 노방전도
Kampong Kou.(동) Kampong Kou (서)	20Km	25분	초등학교에서 복음전함 (찬양)오후 강 건너에서 복음전함 (지속적인 선교 필요)	무	학교사역 축호전도 노방전도
Bramat Dey. Roluos	20Km	25분	초등학교에서 복음전함(찬양) 축호 노방전도(지속적인 선교 필요)	무	학교사역 축호전도 노방전도
Campong Krabau. Prey Kuy	30Km	30분	주일 예배후 근거리에서 축호 노방전도. 오후에 축호 노방 전도하다 현지 교회 방문 예배드림	유	축호전도 노방전도
Pou Taun	10Km	15분	축호 노방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